

# 鄭樵의 詩經學

李 再 薰 \*

## 〈目 次〉

- |                   |          |
|-------------------|----------|
| 1. 序 言            | 4. 詩 序 說 |
| 2. 鄭樵의 詩經學에 關한 著作 | 5. 結 語   |
| 3. 詩 六義 說         |          |

## 1. 序 言

中國 經學史에 있어서 宋代는 漢·唐의 傳統 注疏學을 疑心하고 排擊하여 六經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經學의 變古時代로<sup>1)</sup> 이 時代의 經學은 中國 經學 3大派의 하나로 代表되어 ‘宋學’이라 불리우고 있다.<sup>2)</sup>

北宋 慶曆年間 이후 疑古의 學風이 일어나, 孔子를 政治家 혹은 史學家로 이해하여 六經으로부터 微言大義를 탐구하거나 名物訓詁에 치중한 漢·唐 經師의 舊說은 모두 六經의 古義와 거리가 멀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새로이 經文에 의거 古義를 탐구하여 새로운 經說을 提起하였

\*中文科教授

1) 清末 經今文學者인 皮錫瑞는 그의 經學歷史(臺北:河洛圖書出版社, 1974)에서 宋代를 經學變古時代로 일컫었다.

2) 周予同은 經學歷史‘序言’에서 中國 經學을 西漢今文學·東漢古文學·宋學의 三代派로 나누었다.

다.<sup>3)</sup>

北宋과 南宋 交界期の 人物인 鄭樵(1104~1162)는<sup>4)</sup> 이러한 疑古 精神을 바탕으로 當時까지 傳承되어 오던 傳統詩經論, 즉 詩經의 文學的 特性보다는 政治的 功用性에 의거하여 詩旨를 설명한 詩序說 및 詩序說에 입각하여 詩를 해석한 毛傳·鄭箋의 說을 반박·부정하고 독자적인 詩의 해석을 추구하였다.

그의 詩經論은 以後 朱熹(1130~1200)에 의해 계승·발전되어 元·明·清 및 現在까지의 詩經研究에 큰 영향을 끼친만큼 詩經學史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詩經學史에 있어서 이처럼 重要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詩經學 關係 著作이 거의 佚失되었음으로 인해 그의 詩經學에 대한 研究는 全無한 狀態에 놓여 있다. 이에 筆者는 本稿에서 鄭樵의 著書 및 其他 書籍에 보이는 斷片的인 資料에 의거, 그의 詩經論을 大義說과 詩序說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의 詩經學史에 있어서의 위치를 再照明하고자 한다.

## 2. 鄭樵의 詩經學에 關한 著作

鄭樵는 一生을 통하여 수 많은 著書를 남겼는데 대부분 亡失되어 現傳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詩經에 관한 著書도 거의 亡失되고 다만 詩辨妄의 一部分과, 大經輿論의 詩經部分이 傳해질 뿐이다. 本章에서는 現傳하는 그의 著書와 其他 書籍에 言及된 것에 의거하여 그의 詩經에 관한 著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經學歷史, pp.220~221 참조.

4) 字는 漁仲, 號는 溪西逸民이고, 福建 興化軍 莆田縣人으로 夾溪山에 居處하였기 때문에 夾溪先生이라고도 칭한다. 宋 高宗 때 樞密院編修官을 지냈다. 平生을 著述에 힘을 써 무수한 著書를 남겼으나 現傳하는 것은 通志略·爾雅註·夾溪遺稿 등 數種에 불과하다.

## 1. 詩傳 20卷, 亡失

直齋書錄解題·文獻通考·宋史 藝文志 等に 著錄되어 있으며,<sup>5)</sup> 朱德潤의 鄭氏詩傳序에는 ‘詩傳訓詁’라고 되어있다.<sup>6)</sup>

이 책은 元 虞集(1272~1348)의 鄭氏詩傳序에 “集이 어렸을 때 일찌기 詩師로부터 鄭氏 經說을 들었는데, 「大序는 子夏로부터 나오지 않았고 小序는 毛公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대체로 衛宏이 지은 것으로 鄭康成(玄)이 이처럼(즉 大序는 子夏로부터 나왔고 小序는 毛公으로부터 나왔다) 말한 것이다」라고 여겼다. (나는) 마음속으로 저으기 기이하게 여겨 그 全書를 구하려 했지만 얻지 못했다. 中年에 勸講이 되었는데, 阿魯灰叔仲이 泉南守로 있다가 朝廷에 들어와 同官이 되어서 비로소 그 抄錄本을 얻어 읽었다.”<sup>7)</sup> 라는 말을 보면 元代에 일찌기 版本本이 있었다가 그 後에 亡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詩傳의 體制와 內容에 대해서는 現在 상세히 알 수 없지만, 鄭樵의 말과 後人의 기록에 의거하여 대체적인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詩序는 원래 經文과 따로 分離되어 있던 것이 漢儒에 의해 各篇의 머리에 나누어 붙여졌다. 鄭樵는 詩序를 다시 하나로 합쳐 經文의 뒤로 옮겨 놓았고<sup>8)</sup>, 당시까지 전승되어 오던 전통 詩經論인 詩序說을 不信·廢棄하고 “詩를 해석하는 者는 一篇의 뜻에 대해 總序가 없을 수 없으므로 나의 詩傳에도 또한 叙를 두었다.”<sup>9)</sup> 고 하여 詩傳 每篇마다 獨自的

5) 陳振孫, 直齋書錄解題(臺北: 中文出版社 影印), 卷2, 頁15·馬端臨, 文獻通考(臺北: 新興書局 影印), 卷178, p.1547 및 脫脫等, 宋史(臺北: 鼎文書局, 1978), 卷202, 藝文志 참조.

6) 朱彝尊, 經義考(臺北: 中文出版社 影印), 卷106, 頁1 참조.

7) 經義考, 卷106, 頁2~3 引 “集之幼也, 嘗從詩師得鄭氏經說, 以爲大序不出於子夏, 小序不出於毛公, 蓋衛宏所爲而康成之爲說如此. 心竊異之, 欲求其全書不可得. 中歲備員勸講, 有阿魯灰叔仲自守泉南, 入朝爲同官, 始得其錄本讀之.”

8) 朱彝尊, 朱子語類(臺北: 正中書局 影印), 卷80, 頁3에서 “曾有一老儒鄭漁仲, 更不信小序, 只依古本, 與壘在後面.”이라고 하여 鄭樵가 詩序를 經文의 뒤로 옮겨 놓았음을 밝혔다.

9) 周孚, 非詩辨妄(臺北: 藝文印書館 影印, 涉聞梓舊叢書本), 頁2, “釋詩者, 於一篇之義, 不得無總序, 故惟詩傳亦皆有叙焉.”

인 詩序를 두어 詩의 篇旨를 해석하였다.

## 2. 詩辨妄 6卷, 殘存

直齋書錄解題·文獻通考·宋史 藝文志 等に 著錄되어 있다.<sup>10)</sup>

鄭樵는 通志 藝文略에서 그가 詩辨妄을 짓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컨대, 詩는 옛날에 다만 魯·齊·韓 三家였을 뿐으로, 魯 申公·齊 轅固·燕 韓嬰이다. 後漢이 끝날 때까지 다만 이 三家만이 學官에 세워졌을 뿐이다. 漢初에 또 趙人 毛萇이라는 者가 있어 그 詩가 子夏로부터 傳해졌다고 스스로 말하였는데, 아마 論語 “나를 제발시키는 자가 商(子夏)로다”라는 말에 근본을 둔 것이리라. 河間獻王이 비록 좋아했지만, 漢代에는 그것으로써 學官에 세우지는 않았다. 毛公이 일찌기 北海의 相이 되어 그 詩가 北海에 傳해졌고, 鄭玄이 北海人이었기 때 문에 그것을 위해 箋을 했다. 毛詩는 鄭氏가 箋을 한 후로 배우는 者들이 鄭玄을 돈독히 믿었기 때문에 이 詩가 專的으로 行해지고 三家가 마침내 廢해졌다. 齊詩는 魏나라 때 亡失되었고 魯詩는 西晉 때 亡失되었으며, 隋·唐 때에 아직도 韓詩가 있어 근거할 수 있었는데, 五代 후에 이르러 韓詩도 역시 亡失되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만 毛詩만을 의거하고 또 序가 子夏의 作이라고 여겨 더욱 감히 叢論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체로 訟事에 原告와 被告 兩側의 辨론이 없으면 判決에 轉변되게 聽斷하는 利害이 있게 된다. 臣이 이를 위해 詩辨妄 六卷을 지었는데, 그 得失을 알 수 있다.<sup>11)</sup>

10) 同註 5).

11) 鄭樵, 通志略(臺北:商務印書館 影印), 藝文略 第一, PP.115~116. “按詩舊惟魯齊韓三家而已, 魯申公·齊轅固·燕韓嬰也. 終於後漢, 惟此三家並立學官. 漢初, 又有趙人毛萇者, 自言其詩傳自子夏, 蓋本論語起予者商之言也. 河間獻王雖好之, 而漢世不以立學官. 毛公嘗爲北海相, 其詩傳于北海. 鄭玄, 北海人, 故爲之箋. 毛詩自鄭氏既箋之後, 而學者篤信鄭玄, 故此詩專行, 三家遂廢. 齊詩亡于魏, 魯詩亡于西晉. 隨唐之世, 猶有韓詩可據. 迨五代之後韓詩亦亡. 致令學者只據毛氏, 且以序爲子夏所作, 更不敢擬議. 蓋事無兩造之辭, 則獄有偏聽之惑. 臣爲作詩辨妄六卷, 可以見其得失.”

위의 글을 보면 詩辨妄의 ‘辨妄’의 對象이 詩序와 毛傳·鄭箋<sup>12)</sup>임을 알 수 있다. 즉 鄭樵는 詩序가 村野의 망녕된 者의 作이라 여겨 그 說의 不當함을 공격하고, “訟事에 있어 原告와 被告 兩側의 辨론이 없으면 판결에 편벽되게 聽斷하는 미혹됨이 있다”고 하여 毛傳과 鄭箋의 說을 懷疑하고 부정하려 했다.

詩辨妄은 問世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곧 亡失되었다.<sup>13)</sup> 現在는 다만 周孚(1135~1177)의 非詩辨妄에 51條目이 남아 있어<sup>14)</sup> 그 대 대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 3. 原切廣論 320篇, 亡失

‘原切廣論’이라는 名稱은 鄭樵의 夾漈遺稿 寄方禮部書에 보이는 데, 鄭樵는 이 책의 性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배우는 자가 詩를 알지 못하는 것은 大·小序 및 毛·鄭이 (詩의 뜻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原切廣論 320篇을 지어 詩序의 망녕됨을 變별하였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毛·鄭 이래로 詩를 傳한 것 모두가 (毛) 傳을 기록한 것임을 알 것이다. …原切廣論을 보면 비록 三尺童子라 하더라도 大·小序의 망녕된 說을 안다.<sup>15)</sup>

위의 글에 의하면, 原切廣論을 지은 目的이 詩序 및 毛傳·鄭箋의

12) 朱子語類, 卷80, 頁10. “向見鄭漁仲有詩辨妄, 力詆詩序, …以爲皆是村野妄人所作.”

13) 萬壽亭, 困學紀聞集證(臺北:中華叢書編審委員會 影印), 卷3下, 頁18에 “淳熙間, 漁仲書爲周信道孚所駁, 旋即散佚”이라고 하여 詩辨妄이 問世한지 얼마 안되어 周孚의 비판을 받아 곧 散佚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14) 周孚는 非詩辨妄 ‘自序’에서 “古之教人者, 未嘗有訓詁也. …故即 大經之詩而訓詁之. …雖聖人起, 未易廢也, 而 鄭子乃欲盡廢之. 此序之所以不得已而有言也, 故撮其害理之甚者, 見於予書, …於是總而次之, 凡四十二事爲一卷”이라고 하여 鄭樵 詩辨妄의 說을 지적·반박한 것이 42條目임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51條目이 된다.

15) 鄭樵, ‘寄方禮部書’, 夾漈遺稿(臺北:藝文印書館 影印, 藝海珠塵本), 卷2, 頁6~7. “學者所以不識詩者, 以大小序與毛鄭爲之蔽障也. …作原切廣論三百二十篇, 以辨詩序之妄, 然後知毛鄭以來所傳詩者, 皆是錄傳. …觀原切廣論, 雖三尺童子, 亦知大小序之妄說.”

說을 否定·攻擊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詩辨妄의 目的과 一致한다. 이로 보아 詩辨妄의 異名인 것 같다. 그리고 320 篇이라 함은 詩經 各篇에 대한 詩序說 및 毛·鄭說의 誤謬를 論辨한 311(305) 篇과 詩經에 대한 一般論 9(15) 篇을 말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辨詩序妄 127篇, 亡失

이 名稱 역시 寄方禮部書에 보이는데,<sup>16)</sup> ‘辨詩序妄’이라는 名稱이 전적으로 詩序說의 망녕됨을 辨別함을 뜻하는 것인 즉 詩辨妄의 一部인 것으로 추측된다.

#### 5. 詩名物誌, 亡失

이 名稱은 夾漈遺稿 獻皇帝書와 上宰相書에 보이는데,<sup>17)</sup> 卷帙의 數에 대해서는 言及이 되어 있지 않다. 그는 “詩가 뜻으로 헤아려 밝히기 어려운 까닭은 鳥獸草木의 名稱에 있어서”<sup>18)</sup> “孔子가 사람들로 하여금 詩를 배우도록 한 것은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게끔 하려 한 것이다”<sup>19)</sup> 고 여겨 詩經에 出現하는 昆蟲·魚類·鳥獸·草木에 관하여 記述하였다.

#### 6. 六經奧論

六經奧論中の 第三卷이 詩經部分으로 詩經에 관한 全般的인 問題를 23 條目으로 나누어 記述하고 있는데 그 目錄은 다음과 같다.

16) ‘寄方禮部書’, 위의 책, 卷 2, 頁 11 참조.

17) ‘獻皇帝書’, 위의 책, 卷 2, 頁 4와 ‘上宰相書’, 같은 책, 卷 3, 頁 4 참조.

18) ‘寄方禮部書’, 위의 책, 卷 2, 頁 6. “詩之難可以意度明者, 在于鳥獸草木之名也.”

19) 非詩辨妄, 頁 13. “孔子教人學詩者, 欲多識鳥獸草木之名也.”

(1) 毛氏傳, (2) 二南解, (3) 關雎辨, (4) 國風辨, (5) 風有正變辨, (6) 雅非有正變辨, (7) 豳風辨, (8) 風·雅·頌辨, (9) 頌辨, (10) 商魯頌辨, (11) 逸詩辨, (12) 諸儒逸詩辨, (13) 亡詩六篇, (14) 樂章圖, (15) 刪詩辨, (16) 詩序辨, (17) 詩箋辨, (18) 讀詩法, (19) 詩有美刺, (20) 毛·鄭之失, (21) 詩亡然後春秋作, (22) 春秋以詩廢而亡, (23) 解經不可牽強.

다만 六經奧論은 원래 鄭樵의 手定本이 아니라 宋 末期人이 編輯한 것으로 鄭樵의 詩經論 이외에 他人의 說이 섞여 있다.<sup>20)</sup> 詩經 部分에서 鄭樵의 詩經論과 일치되어 그의 著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 (4) (5) (6) (13) (15) (16) (20) (22) 等 9條뿐이다.

이 책은 現在 通志堂經解本·四庫全書本·藤花榭本·嘉慶甲子蔡熙增刻本이 傳한다.

그 외에 通志略 여러 곳에 鄭樵의 詩經論이 기록되어 있어 貴重한 자료가 되고 있다.

### 3. 詩六義說

周禮 春官에 “大師는…… 六詩를 가르치는데, 風·賦·比·興·雅·頌이다”<sup>21)</sup>라 하여 詩를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毛詩 大序는<sup>22)</sup>이에 의거하여 詩에 六義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詩에 六義가 있으니, 첫째는 風이며, 둘째는 賦이며, 셋째는 比이

20) 經義考, 卷 245, 頁 7·四庫全書總目(臺北:藝文印書館 影印), 卷 33, 頁 16~17 및 全祖望, ‘故六經奧論’, 鮑琦亭集(臺北:華世出版社, 1977), 外編, 卷 34, p.1139 참조.

21) 周禮(臺北:藝文印書館 影印, 十三經注疏本), p.356. “大師……教六詩:曰風·曰賦·曰比·曰興·曰雅·曰頌.”

22) 毛詩 大·小序에 관한 사항은 아래 詩序說 참조.

23) 詩經(臺北:藝文印書館 影印, 十三經注疏本), p.15. “詩有六義焉:一曰風·二曰賦·三曰比·四曰興·五曰雅·六曰頌.”

24) 王質, 詩總聞(臺北:大通書局 影印, 經苑本), 卷 2, 頁 1과 章炳麟, 國學略說(臺北:河略圖書出版社, 1975), p.69 참조.

며, 네째는 興이며, 다섯째는 雅이며, 여섯째는 頌이다.<sup>23)</sup>

大義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歷代 學者들은 제각기 다른 見解를 피력하고 있다. 王質·章炳麟은 모두가 詩의 體裁라고 여겼고,<sup>24)</sup> 程頤는 모두가 詩의 作法이라고 여겼으며,<sup>25)</sup> 賈公彥과 孔穎達은 體와 用으로써 大義를 해석하여, 風·雅·頌이 詩의 體裁이고 賦·比·興은 詩의 作法이라는 說을 제시하였다.<sup>26)</sup> 이 중에서 質·孔의 說이 現在까지 一般의 通說로 인정되고 있다.

風·雅·頌 및 賦·比·興에 대한 定義는 宋代까지 詩序說 및 詩序說에 바탕을 둔 毛傳·鄭箋說이 信奉되어 왔다. 鄭樵는 이에 異議를 제기하고 새로운 說을 내세워 獨自의인 大義說을 定立하였다. 本章에서는 風·雅·頌과 賦·比·興 두 부분으로 나누어 鄭樵의 大義說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風雅頌說

毛詩 大序는 風·雅·頌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風은 바람이고 가르침이다. 바람으로써 움직이게 하고 가르침으로써 化하게 한다. …… 위는 風으로써 아래를 教化하며 아래는 風으로써 위를 풍자한다. 완곡하게 다듬어진 말로써 던지시 諫하니, 말하는 자는 죄받지 않으며 듣는 자는 죽히 警戒함을 만하다. 그러므로 風이라 한다. …… 그러므로 한 나라의 일이 한 사람의 근본에 매어져 있는 것을 風이라 하며, 天下의 일을 말하고 四方의 風俗을 형용하는 것을 雅라고 하는데, 雅는 正이라는 뜻으로 王政이 興하고 廢하는 원인을 말한다. …… 頌은 盛德을 贊美하는 형용으로 그 功을 이룬 것으로써 神明에게 告

25) 程頤·程頤, '伊川先生語' 十, 河南程氏遺書(臺北:商務印書館, 1976), 卷24, p.34 참조.

26) 周禮(十三經注疏本), p.356과 詩經(十三經注疏本), p.16.

하는 것이다.<sup>27)</sup>

위의 같이, 大序는 風·雅·頌의 定義를 政教의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 風에 教化와 諷諫의 功能 즉 下民이 風詩로써 君上을 諫하면 君上은 그것으로써 鑑戒로 삼는 風刺의 功能과 君上이 風詩로써 下民을 教化하면, 마치 바람에 풀이 쏠리듯이 모두가 感化되는 風動의 功能이 있으며, 雅는 朝廷 政事의 읊고 그름을 읊은 詩이며, 頌은 祖上의 德을 칭송하고 祭祀지낼 때 읊는 詩라고 定義하였다.

鄭樵는 字義에 의거하여 風·雅·頌을 政治의 으로 定義한 詩序의 解釋方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字義로써 風·雅·頌의 定義를 내릴 수 없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릇 文字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形象에 의거하여 定立하는데, 風·雅·頌은 모두 聲으로 形象이 없기 때문에 다른 文字를 취해 借用하였다. '風'은 風雨의 風을 본받고 '雅'는 烏鴉의 鴉를 본받고 '頌'은 頌容의 頌을 본받은 것이다. 어찌하여 詩를 序한 者가 假借한 文字中에서 義理를 求하였는가?<sup>28)</sup>

鄭樵는 詩의 風·雅·頌은 모두 노래의 曲調로 그 名稱은 모두 音を 假借하여 이름붙인 것으로 아무런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것이므로 詩序가 字眼 自體로부터 名稱의 의미를 찾은 것은 風·雅·頌이 노래의 曲調임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sup>29)</sup> 그는 詩가 원래 音樂에 맞추어 부르던 樂章歌辭로, 항상 音樂과 并用되어 燕饗이나 祭祀 때 쓰이는데,<sup>30)</sup> 孔子가 詩經을 編할 때 三百篇을 風·雅·頌으로 나누어 歸屬

27) 詩經(十三經注疏本), pp. 12~18. “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 ……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諷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故曰風. …… 是以一國之事, 繫一人之本, 謂之風;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 雅者,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也. …… 頌者, 美盛德之形容, 以其成功告於神明者也.”

28) 非詩辨妄, 頁 5. “凡制文字, 必依形依象而立. 風雅頌皆聲, 無形與象, 故無其文, 皆取他文而借用. 如風本風雨之風, 雅本烏鴉之鴉, 頌本頌容之頌. 奈何叙詩者於借字之中求義也?”

29) 通志略, 樂略第一, p. 11 참조.

30) 위의 책, '通志總序', pp. 16~17 참조.

시킨 것은 風·雅·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燕·享·祀의 禮의 用途에 맞추어 노래하기 위하여 분류한 것,<sup>31)</sup> 즉 소위 風·雅·頌이라는 것은 樂章이 여러 曲調로 나뉘는 것처럼, 노래의 曲調를 그 특성과 用途에 따라 세 종류로 大別하여 붙인 이름이라고 여겨<sup>32)</sup> 風은 土俗的인 노래의 曲調이며, 雅는 朝廷에서 불리던 우아한 노래의 曲調이며, 頌은 宗廟祭祀 때 불리던 장중한 노래의 曲調라고 풀이하였다.

樂은 詩로써 근본을 삼으며, 詩는 聲(즉 노래의 曲調)으로써 쓰임을 삼는다. 風土의音を '風'이라 하며, 朝廷의音を '雅'라 하며, 宗廟의音を '頌'이라 한다.<sup>33)</sup>

邶風 谷風篇과 小雅 小弁篇에 모두 “毋逝我梁，毋發我筍，我躬不閱，遑恤我後”의 四句가 있고 詩의 體裁도 서로 같은데도 하나는 風에 있고 하나는 雅에 있는 것은 바로 曲調가 다르기 때문이다.

鄭樵는 또 孔子가 風을 十五國風으로 나누고, 雅를 大雅와 小雅로 나누고, 頌을 周頌·魯頌·商頌으로 나누는 것 또한 노래의 曲調가 相異함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仲尼가…十五國風을 列舉하여 風土의音が 같지 않음을 밝히고, 大·小二雅로 나누어 朝廷의音が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周·魯·商 三頌의音を 列舉한 것은 祭祀를 모신 것이다.<sup>34)</sup>

邶·鄘·衛風의 詩 모두가 衛國의 일을 읊었으며 同一 國家의 境內에서 채집되었는데도 三國風으로 나뉘어져 있고 邶風과 鄘風에 柏舟篇, 王風·鄭風 및 唐風에 揚之水篇, 鄭風·唐風 및 檜風에 羔裘篇, 唐風과 秦風에 無衣篇이 共히 있으며, 相同한 詩句가 많은데도

31) 위의 책, 樂略第一, p.1 참조.

32) 위의 책, 樂略第一, p.83 참조.

33) 위의 책, '通志總序', p.16. “樂以詩爲本, 詩以聲爲用. 風土之音曰風, 朝廷之音曰雅, 宗廟之音曰頌.”

34) 위의 책, 樂略第一, p.4. “仲尼…列十五國風, 以明風土之音不同; 分大小二雅, 以明朝廷之音有間; 陳周魯商三頌之音, 所以備祭也.”

각기 分離 歸屬되어 있는 까닭은 各 詩篇이 속해 있는 樂章 즉 曲調가 다르기 때문이다.

## 2. 賦比興說

賦·比·興은 詩의 作法 즉 詩의 表現方法으로, 詩人이 이를 運用하여 자신의 感情과 意思를 詩로써 表出하였기 때문에 詩人이 如何한 表現方法을 빌어서 詩를 지었는가가 詩人의 本意를 헤아리는 데 있어 중요한 關鍵이 된다.

詩 三百篇은 한 시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數世紀에 걸쳐 多數의 無名 詩人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作法은 千變萬化하다. 後代 學者들이 詩의 本文에 의거 逆으로 詩人의 本意를 헤아리는 과정에서 이 千變萬化한 作法을 分析·歸納한 결과 얻은 通則이 바로 賦·比·興이다.

이 세가지 作法의 名稱을 최초로 기록한 周禮와 周禮의 기록에 의거하여 六義說을 제시한 毛詩 大序에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如何한 表現方法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賦·比·興의 作法에 의거하여 詩解釋을 시도한 사람은 毛公으로, 그는 詩詁訓傳에서 興의 方法으로 쓰여졌다고 여긴 詩篇에 대해서만 “興也”라고 표기하여 興詩임을 밝혔을 뿐 賦詩와 比詩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賦·比·興 가운데 賦는 後世 詩人들에 계승되어 漢賦로 발전하고 比는 託物言志하는 象徵詩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如何한 表現方法에 속하는가는 비교적 명확하여 표기할 필요가 없으나, 興은 다만 民間歌謠에 保存되어 있을 뿐 後世 詩人의 作品에 보이지 않는 詩經 특유의 表現方法으로 識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毛公은 興의 定義를 내리지 는 않았지만 關雎篇 “關關雎鳩, 在河之洲” 下注에 “興이다. 關關은 和藹로운 소리이다. 雎鳩는 王雎로,

(이) 새는 ( 암수의 情이 ) 지극하되 有別하다. …… 后妃가 君子의 德을 좋아하여 和藹롭지 않음이 없으며 또 그 美色에 스스로 淫慾하지 않고 深宮에 있으면서 謹慎함이 關雎가 有別함과 같다”<sup>35)</sup>고 하여 興句에서 읊은 事物이 詩인이 表出하고자 하는 主題와 意義上 관련이 있어 聯想作用 내지 象徵作用을 한다고 興을 설명하였고, 應句인 “窈窕淑女, 君子好逑” 下注에 “后妃가 關雎의 德을 가지고 있어, 이 幽閒하고 貞專한 善女가 마땅히 君子의 좋은 配偶이 되어야 한다”<sup>36)</sup>고 하여 興句와 應句 또한 意義上 연관이 되어 興句의 말이 應句의 말을 興起시킨다고 여겼다. 鄭玄을 비롯한 漢·唐 學者들은 모두 毛公의 說을 定說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詩를 해석하였다.

鄭樵는 興을 聯想作用으로 해석한 從來의 傳統的 견해를 부정하고 “詩는 聲에 있는 것이지 義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37)</sup>라는 詩主聲說을 주장, 興句에서 읊은 내용에는 詩의 主題 즉 應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연상시키는 象徵作用 즉 意義上의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詩인이 詩를 읊을 당시의 感興으로 詩興을 돋우어 詩를 이끌어 내는 作用만 있을 뿐이므로 興句에서 어떠한 義理를 탐구하여 詩를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무릇 興이라는 것은 본 바는 여기에 있고 얻은 바는 저기에 있어, 事類로써 헤아릴 수 없으며, 義理로써 탐구할 수 없다. 興이 鴛鴦에 있으면 “鴛鴦在梁”이 后妃를 찬양할 수 있고, 興이 鴈鳩에 있으면 “鴈鳩在桑”이 后妃를 찬양할 수 있으며, 興이 黃鳥에 있고 桑扈에 있으면 “綿蠻黃鳥” “交交桑扈” 모두 后妃를 찬양할 수 있다. 만약 반드시 關雎인 後후라야 后妃를 찬양할 수 있고 다른 것은(后妃와)

35) 詩經(十三經注疏本), p.20. “興也. … 鳥擊而有別. … 后妃說樂君子之德, 無不和聲, 又不淫其色, 慎固幽深, 若關雎之有別焉.”

36) 같은 곳, “書后妃有關雎之德, 是幽閒貞專之善女, 宜爲君子之好匹.”

37) 通志略, 樂略第一, p.11. “詩在於聲, 不在於義.”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詩를 이야기할 수 없다.<sup>38)</sup>

雎鳩는 그저 징경이라는 물새에 불과한 것으로 詩旨와 상관되는 어떠한 의미도 취하고 있지 않아 后妃의 德 혹은 “窈窕淑女”와는 意義上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雎鳩 대신에 鴛鴦·鳩鳩·黃鳥·桑扈 따위의 餘他 鳥類로써 興으로 삼아 后妃의 德을 찬양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漢代의 民間 長篇叙事詩인 孔雀東南飛의 興句 “孔雀東南飛，五里一徘徊”가 詩의 主題인 焦仲卿과 芝蘭사이의 悲戀과는 사실상 何等의 연관 關係를 갖지 않고 다만 詩興을 돋우기 위해서 쓰인 것처럼 興句에서 義理를 찾는 것은 詩意를 曲解할 수 있으므로 不可하다는 것이다.

#### 4. 詩序說

漢代에 詩經은 今文經學인 齊詩·魯詩·韓詩와 古文經學인 毛詩 등 네 派로 나뉘어 전승되었다. 이들은 經文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뿐 아니라 詩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漢 이후로 今文인 齊·魯·韓 三家가 차례로 소실되고<sup>39)</sup> 毛詩만이 홀로 現傳하고 있다.

毛詩에는 詩序라는 것이 있는데, 關雎篇序中에서 詩의 發生 根源·性質·功用 등 詩의 基本 理論을 설명한 “風，風也，教也”이하 末尾까지를 大序라 일컫고 詩經 各篇마다의 서두에 붙어 各篇의 大意 및 創作動機를 설명한 것을 小序라 이른다.<sup>40)</sup>

38) 舊題 鄭樵, 六經輿論(臺北:大通書局影印, 通志堂經解本), '總文', 頁14, “凡興者, 所見在此, 所得在彼, 不可以事類推, 不可以理義求也, 興在鴛鴦, 則「鴛鴦在梁」可以美后妃也, 興在鳩鳩, 則「鳩鳩在桑」可以美后妃也, 興在黃鳥, 在桑扈, 則「綿蠻黃鳥」·「交交桑扈」皆可以美后妃也, 如必曰「關雎然後可以美后妃, 他無預焉」, 不可以語詩也.”

39) 齊詩는 魏 때, 魯詩는 西晉 때, 韓詩는 北宋 때 亡失되었다.

40) 陸德明, 經典釋文(臺北:大通書局影印, 通志堂經解本), 卷5, '毛詩音義' 上, 頁1 참조.

毛詩序는 漢·唐 이래로 宋代 初期까지 詩經의 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켜왔는데, 이는 詩序를 孔子 弟子인 子夏가 썼다는 데서 연유한다. 鄭玄은 “大序는 子夏가 쓴 것이고 小序는 子夏와 毛公이 合作하였는데, 子夏의 뜻에 미진함이 있어 毛公이 덧붙여 완성하였다”<sup>41)</sup>고 여기고, 詩經의 모든 詩의 해석을 전적으로 詩序說에 의거하였다. 唐代에 五經正義를 敕撰하여 詩經은 毛·鄭說을 따르는 이후로 詩序說이 定說化되어 北宋初까지 이에 異議를 제기하는 자가 없다가서 하였다.<sup>42)</sup>

北宋 中期에 이르러 漢·唐 이래로 전승되어온 注疏學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先秦時代의 것을 탐구하는 疑古의 學風이 일어남에 따라 詩經論에 있어서도 회의적인 立論들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歐陽修는 詩序가 子夏의 作이 아니라고 주장<sup>43)</sup> 二南 詩序의 오류를 지적하였고,<sup>44)</sup> 蘇轍은 小序가 反復되고 繁重하여 一人의 作이 아니라 毛公의 學을 毛公의 제자들이 集錄한 것이라 추정하고 그의 詩集傳에서 첫 句만이 孔子의 말이라 여겨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 하여 삭제하여 버렸다.<sup>45)</sup>

鄭樵는 이들의 見解에 동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進一步하여 詩序의 說을 철저히 不信하고 批判하는 동시에 자기 나름대로 새로이 詩經 各篇마다에 詩序를 만들었다. 本章에서는 鄭樵의 詩序說을 反詩序·反毛鄭 및 詩序說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41) 같은 곳. “大序是子夏作, 小序是子夏·毛公合作. 卜商意有不盡, 毛更足成之.”

42) 비록 唐代에 韓愈와 成伯瓚가 詩序진부가 子夏의 作은 아님을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當時 學者들의 注意를 끌지 못했다. 韓愈의 說은 楊慎의 升菴經說(臺北: 宏業書局影印, 函海本), 卷4, p.1 참조. 成伯瓚의 說은 成氏의 毛詩指說(臺北: 大通書局影印, 通志堂 經解本) 참조.

43) 歐陽修, 詩本義(臺北: 大通書局 影印, 通志堂經解本), 卷14, 頁10~11 참조.

44) 위의 책, 卷2, 頁5~6 참조.

45) 蘇轍, 詩集傳(臺北: 商務印書館, 四庫全書珍本六集), 卷1, 頁6~7 참조.

## 1. 反詩序

鄭樵는 當時까지 정통 詩經論으로 인정되어 온 詩序說을 不信 내지 否定하기 위하여 詩經에 있어서 風과 雅는 원래 序가 없고 다만 頌에 序가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反詩序 立論의 第一 根據로 내세웠다.

臣이 삼가 생각하건대, 옛날 詩 風·雅에는 모두 序가 없고 다만 頌에 序가 있는 까닭은 風·雅는 채집한 詩이기 때문으로, 그 처음 (즉 詩를 지은 動機) 및 사용되는 때를 알지 못해 (그 쓰임이) 일이 형편에 알맞음을 따랐고, 또한 (그 뜻이) 일정한 歸着이 없어, 혹은 한 篇 가운데에서 단지 한 두 句를 취하여 뜻을 나타냈을 뿐이므로 序가 필요하지 않았다. 頌은 지은 바에 연관되어 오직 宗廟의 樂에만 사용되지 郊天柴望의 祭祀에 사용될 수 없으며, 講武에 사용될 수 없다. 蔡邕의 獨斷에 오로지 頌의 序만을 실은 까닭은(그것이) 祀典을 위한 것이고 風·雅는 본래 序가 없었기 때문이다. 齊·魯·韓·毛 四家の 說이 일어나면서부터 각기 風·雅의 序를 만들었는데, 그 처음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 다만 頌詩의 序를 모방하여 만든 것인데, 사실 風·雅는 序가 필요없음을 모른 것이다. 序가 있으면 頌聲을 미혹하기에 꼭 알맞다.<sup>46)</sup>

위에서 보았듯이 鄭樵는 詩經의 風·雅는 원래 채집된 것으로 그 창작동기나 사용 時期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序가 없었고 또한 風·雅의 詩는 그 用途에 있어서 一定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春秋時代에 諸侯 및 使臣들 사이의 燕饗 때에 盛行한 斷章取義 방식처럼 詩의 한 두 句를 취해 노래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바(賦詩以見志),

46) 通志略, 樂略第一, p.79. “臣謹按: 古詩風雅皆無序. 惟頌有序者, 以風雅者, 所采之詩也, 不得其始兼所用之時, 隨其事宜, 亦無定著, 或於一篇之中, 但取一二句以見意而已, 不必序也. 頌者保乎所作, 而獨用之廟樂, 不可用於郊天柴望, 不可用於講武. 所以蔡邕獨斷, 惟載頌序, 以爲祀典, 而風雅本無序也. 自齊魯韓毛四家の說起, 各爲風雅之序, 度其初意, 只欲放頌詩之序而爲之, 其實不知風雅無用於序, 有序適足以惑頌聲也.”

同一한 詩라도 그것을 使用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意味가 다를 수 있어, 詩篇의 大意를 규정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데 비하여, 頌은 그 用途가 宗廟의 樂으로만 쓰이도록 一定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序가 있다고 주장, 詩序는 齊·魯·韓·毛 四家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子夏의 作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어떤 사람은 大序가 子夏에 의해 지어졌고 小序는 毛公에 의해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說은 그르다. 序는 鄭玄의 注가 있되 鄭箋이 없으니 그것이 子夏에 의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毛公은 詩에 대하여 다만 傳을 지었을 뿐이니 그가 (小)序를 짓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하다.<sup>47)</sup>

鄭玄이 毛傳에 대하여 箋을 달았는데, 유독 序에 대해서는 箋을 달지 않고 注를 단 것은 毛公이 序에 傳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며 毛公이 序에 傳을 달지 않은 까닭은 본래 毛詩에 序가 없었기 때문이다. 鄭樵는 이러한 사실에 의거하여 序는 子夏의 作이 아니며 毛公 또한 序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는 또 毛詩에 있어서 詩序의 傳授關係가 分明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子夏가 지었다는 詩序의 存在를 부정하였다.

가령 子夏가 傳한 序가 있었다면, 어찌서 齊·魯間에서 먼저 나왔는 데도 배우는 者들이 전하지 않고 오히려 趙에서 나왔는가? 序가 기왕 늦게 趙에서 나왔다면, 어디서 이學을 傳했는가?<sup>48)</sup>

史記 仲尼弟子列傳과 儒林列傳에 의하면 孔子가 죽은 후에 子夏는 西河에 거처하며 門徒들을 가르쳐 齊·魯間에 學風이 盛했다고 하였다. 그

47) 六經奧論, 卷3, 頁15. “或者謂大序作於子夏, 小序作於毛公. 此說非也. 序有鄭注而無鄭箋, 其不作於子夏明矣. 毛公於詩, 第爲之傳, 其不作序又明矣.”

48) 非詩辨妄, 頁1. “設若有子夏所傳之序, 因何齊魯間先出, 學者却不傳, 返出於趙也? 序既晚出於趙, 何處而傳此學?”

렇다면 詩序는 齊·魯間에 있는 門人에 의해 傳해 졌어야 하는데 趙人인 毛公이 子夏의 詩序를 전하였으니, 子夏 詩序의 傳承 및 出處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詩序가 子夏 또는 毛公의 作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지은 것인가에 대해서 鄭樵는 後漢書 儒林傳에 의거하여 衛宏이 詩序를 지었다고 단정하였다.

後漢(書) 儒林傳을 살펴보면, “衛宏은 字가 敬仲으로 謝曼卿을 따라 毛詩를 배우고 이에 毛詩序를 지어 風·雅의 뜻을 잘 얻었는데, 지금까지 세상에 전한다”라고 했다. ……생각컨대 毛氏의 說과 歷代 講師의 說을 宏에 이르러 모두 詮釋하고 배열한 것이다.<sup>49)</sup>

鄭樵는 詩序가 衛宏의 作이라는 또 하나의 근거로 詩序의 作者가 劉歆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劉歆의 三統歷 “文王이 天命을 받은지 9년이 되어 죽었다(文王受命九年而崩)”라는 말을 大雅 文王篇의 序에서 援用한 것을 보면 詩序의 作者가 劉歆 이후의 사람이 분명한데, 그가 바로 衛宏이라는 것이다.

劉歆의 三統歷에 “文王이 天命을 받은지 9년이 되어 죽었다”라고 망녕되게 말하여 衛宏이 “文王이 天命을 받아 周를 세웠다”라고 잘못 말하게끔 하였다.<sup>50)</sup>

만약 詩序가 先秦 또는 西漢 時代に 作成되었다면 응당 漢代에 通行되어 이를 引用한 典籍이 있어야 하는데 魏 黃初 4年(2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曹風 侯人篇의 序 “曹共公이 君子를 멀리하고 小人을 가까이 한다(曹共公遠君子, 近小人)”가 처음 引用된 것을 보면 詩序가

49) 六經奧論, 卷3, 頁15~16. “按後漢儒林傳云:「衛宏, 字敬仲, 從謝曼卿學毛詩, 因作毛詩序, 善得風雅之旨, 於今傳於世。」……意者毛氏之說, 歷代講師之說, 至宏而悉加詮次焉.”

50) 非詩辨妄, 頁11. “劉歆三統歷妄謂文王受命九年而崩, 致誤衛宏言文王受命作周也.”

東漢 때의 作임이 분명하다. 鄭樵는 이 事實으로써 詩序가 東漢 衛宏의 作이라는 佐證으로 삼았다.

衛宏의 序가 東漢 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漢代의 文字에 詩序를 인용한 것이 없다. 다만 黃初 4 年에 “曹共公이 君子를 멀리하고 小人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을 뿐이다. 대체로 魏는 漢의 다음으로 衛宏의 序가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通行한 것이다.<sup>51)</sup>

詩의 風·雅는 원래 序가 없었고 또 있을 필요가 없으며, 現傳하는 詩序가 先秦時代의 것 즉 子夏의 作이 아니라 村野의 망녕된 사람인 衛宏이 억지로 여러 說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誤謬가 百出함에도 불구하고 後人들이 이를 金科玉條로 신봉하여 詩를 해석함에 不滿을 느낀 鄭樵는 詩序의 造作 方法을 분석하고 그 謬妄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① 孔子의 말뜻에 대한 曲解: 孔子가 論語 八佾篇에서 詩經 關雎篇에 대하여 “關雎는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으며, 슬퍼하되 傷함에 이르지 않는다(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라고 評하였는데, 詩序의 作者는 이에 의거하여 “關雎는 (后妃가) 賢淑한 女人을 얻어 君子(즉 자기의 남편)에 짝을 지어주는 것을 즐거워 하고, 걱정하는 바는 賢淑한 女人을 進學하는 데 있어 자기의 美色으로써 寵愛를 구하지 않으며, 窈窕스런 女人(이 升進하지 못함)을 애달파 하고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女人)을 얻을 것을 생각하되 善人을 해칠 마음이 없다. 이것이 關雎의 뜻이다.”<sup>52)</sup>라고 하였다. 鄭樵는 孔子의 關雎에 대한 評은 關雎詩의 노래 소리가 온화하여 그 效用이

51) 六經奧論, 卷 3, 頁 17. “宏詩作於東漢, 故漢世文字未有引詩序者. 惟黃初四年有「曹共公遠君子, 近小人」之語. 蓋魏後於漢, 而宏之序至是而始行也.”

52) 詩經(十三經注疏本), p. 19. “關雎樂得淑女, 以配君子, 憂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 思賢才, 而無傷害之心焉. 是關雎之義也.” 본문의 해석은 孔穎達의 疏에 의거하였음.

그러하다는 것이지 결코 義理로써 論한 詩의 뜻이 그러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sup>53)</sup> 孔子의 말에서 어떤 오묘한 이치를 찾으려고 義理로써 詩旨를 확대 해석한 誤謬를 비판하였다.

孔子는 또 “關雎는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으며 슬퍼하되 傷함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노래) 소리의 온화함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情性은 노래를 들으면 감동하게 되어 즐거워하는 자가 노래를 들으면 감동하여 지나치게 되며, 슬퍼하는 자가 노래를 들으면 감동하여 傷하게 된다. 다만 關雎의 소리만이 和平하여 즐거운 자가 들으면 즐거워하되 그 즐거워함이 지나침에 이르지 않으며, 슬퍼하는 자가 들으면 슬퍼하되 그 슬퍼함이 傷함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關雎가 아름다운 까닭이다. 漢人이 學官을 세워 詩를 講함에 전적으로 義理로써 서로 傳하였다. 이것이 衛宏의 詩序로 하여금 ‘樂’을 ‘樂得淑女’의 ‘樂’으로, ‘淫’을 ‘不淫其色’의 ‘淫’으로 ‘哀’를 ‘哀窈窕’의 ‘哀’로, ‘傷’을 ‘無傷善’의 ‘傷’으로 여기게 했다.<sup>54)</sup>

② 望文生義; 詩序의 作者는 왕왕 詩篇中의 한 두 句에 의거하여 詩旨를 推論하였는데 鄭樵는 이의 不當함을 비판하였다.

何人斯篇에서 “維暴之云”이라고 한 것은 暴虐한 사람을 일컫는다. 또 二周(東·西周)의 畿內에 모두 暴邑이 없었으니, 周에 어찌 일찌기 暴公이 있었겠는가?<sup>55)</sup>

小雅 何人斯篇의 序에 “何人斯는 蘇公이 暴公을 풍자한 것이다. 暴

53) 通志略, 樂略第一, p.12 참조.

54) 위의 책, 昆蟲草木略第一, pp.2~3. “仲尼…… 又曰:「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此言其聲之和也. 人之情, 聞歌則感; 樂者聞歌則感而爲淫; 哀者聞歌則感而爲傷. 惟關雎之節而和平; 樂者聞之而樂, 其樂不至於淫; 哀者聞之而哀, 其哀不至於傷. 此關雎所以爲美也. 緣漢人立學官講詩, 專以義理相傳, 是致衛宏序詩, 以樂爲樂得淑女之樂, 淫爲不淫其色之淫, 哀爲哀窈窕之哀, 傷爲無傷善之善.”

55) 非詩辨妄, 頁11. “何人斯言維暴之云者, 謂暴虐之人也. 且二周畿內皆無暴邑, 周何嘗有暴公?”

공이 卿士가 되어 蘇公을 힐뜰었기 때문에 蘇公이 이 詩를 지어 絶交하였다”<sup>56)</sup>라고 하여 “維暴之云”句의 ‘暴’를 暴公으로 해석하였는데, 鄭樵는 이를 暴虐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周나라 때 暴公이라는 인물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한 것이다.

詩의 篇名은 詩篇中の 글자를 취하거나 詩篇의 要旨로써 命名한 것으로 별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詩序는 篇名의 字眼에 의거하여 억지로 政治的인 의미를 부여하여 牽強附會한 것이 있다. 鄭樵는 雨無正·召旻·蕩篇의 詩序가 이러한 폐단이 있음을 지적 공박하였다.

무릇 詩는 모두 篇中の 글자를 취하여 題目을 지었다. ‘雨無正’은 詩篇의 中心되는 뜻을 취한 것이다. 때문에 詩序의 作者가 “雨無正은, 비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으로, (王의 政令이) 비처럼 衆多하지만 政이 되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sup>57)</sup>

召旻詩 首章에 “旻天疾威”라 하고 卒章에 “有如召公”이라 하였는데, 이는 首·卒章의 한 字를 취하여 題目으로 한 것으로, 더욱 다른 뜻이 없는데, 序는 “旻은 閔으로, 天下에 昭公같은 臣下가 없음을 애달파 함이다”라 했으며, 蕩은 “蕩蕩上帝”로 하늘이 蕩蕩하게 끝이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蕩’字를 취하여 篇名으로 삼은 것인데, 그 또한( 篇名이) 나온 바를 모르고 “天下가 蕩蕩하여 綱紀와 文章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그 乖離됨이 이와 같은 것이 있다.<sup>58)</sup>

③ 詩意의 曲解: 鄭樵는 采芣篇과 將仲子篇의 詩旨가 詩序와 符合되지 않는 것은 詩序의 作者가 억지로 詩篇中에서 어떠한 의미를 구하기 위하여 詩意를 曲解하였다고 비판하였다.

56) “何人斯，蘇公刺暴公也。暴公爲卿士而譖蘇公焉，故蘇公作是詩以絶之。”

57) 非詩辨妄，頁 11. “凡詩皆取篇中之字以命題。雨無正取篇中之義，故作叙者曰：「雨無正，雨自上下者也，衆多如雨，而非所以爲政也。」此何等語哉？”

58) 위의 책，頁 9. “舊旻詩首章言旻天疾威，卒章言有如召公，是取始卒章之一字，合爲題，更無他義。叙者曰：「旻，閔也。閔天下無如召公之臣也。」蕩是蕩蕩上帝者，謂天之蕩蕩然無涯也，故取蕩名篇。彼亦不知所出，則曰「天下蕩蕩無綱紀文章」，其乖脫有如此者”

(詩序에서) 采芣篇이 婦人이 子息이 많음을 즐거워한다고 여겼는데, 采芣詩에 의거하면 子息이 많음을 즐거워하는 뜻은 전혀 없다. 詩序가 이것을 말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로 養生의 說은 의례의미를 구하여 道理로 삼으니, 이 말은 공연한 것이 아니라 하여 자식이 많음을 즐거워한다고 여긴 것이다. 또 采芣詩는 (질경이를) 채취함을 興한 것으로, ……한 때 채취하는 興을 기술한 것일 뿐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59)

이것 (將仲子篇)은 사실 淫奔詩로 莊公·叔段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대체로 序가 틀렸는데, 說者가 또 따라서 교묘하게 말을 하여 그 일에 맞추었다. 오류 또한 심하다. 60)

④ 妄生美刺: 詩序는 詩의 篇旨를 王道의 興衰·政教의 得失에 의거, 某爲政者 또는 某事를 찬미하거나 풍자한 것으로 설명하여 正風·正雅의 詩는 美詩로, 變風·變雅의 詩는 刺詩로 규정하였는데, 鄭樵는 詩의 正·變說을 否定하여 소위 變風·變雅에도 美詩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61) 變風에 속해 있는 簡兮篇을 詩序가 刺詩로 간주한 것을 비판하였다.

簡兮篇은 사실 君子가 射·御·歌·舞에 能한 것을 찬미한 것이다. 어찌 刺詩가 될 수 있는가? 62)

⑤ 附會書史: 詩序는 某時의 某人에 대하여 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詩에 대해서는 대체로 歷史的으로 評判이 좋지 않은 王公 또는 그와 世系가 가까운 王公을 풍자한 것이라고 附會하였다. 그래서 “鄭樵는 詩

59) 위의 책, 頁 3. “以采芣爲婦人樂有子者, 據采芣詩中全無樂有子意. 彼之言此者, 何哉? 蓋養生之說, 例是求義以爲所, 此語不徒然也. 故以爲樂有子爾. 且采芣之作, 興采之也. …以述一時所采之興爾, 何它義哉?”

60) 朱熹, 詩序辨說 (臺北: 藝文印書館 影印, 朱子遺書本), 頁 20 引 “此實淫奔之詩, 無興於莊公叔段之事, 序蓋失之, 而說者又從而巧爲之說, 以實其事, 誤亦甚矣.”

61) 六經輿論, 卷 3, 頁 5~7 참조.

62) 非詩辨妄, 頁 6. “簡兮實美君子能射御歌舞. 何得爲刺詩?”

의 小序가 다만 後人이 史傳을 가지고 고르고 아울러 諡號를 보아서 附會하여 小序의 美刺를 지었다.”<sup>63)</sup> 라고 여겨 陳風 宛丘·東門之枌·衡門篇과 曹風 蜉蝣篇 詩序의 牽強附會를 비판하였다.

宛丘·東門之枌은 幽公을 풍자하고 衡門은 僖公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幽公과 僖公의 事迹은 근거하여 볼 것이 없어, 序의 作者가 다만 諡法에 의거하여 말하였다.<sup>64)</sup>

그것 (詩序)이 侯人篇이 共公을 풍자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共公의 앞은 昭公이다. 때문에 蜉蝣篇이 昭公을 풍자한 것이라 여겼다. 昭公은 사실 그 事迹이 없으나, 불행히 代次가 共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衛宏에 의해 놓여졌다.<sup>65)</sup>

⑥ 論理의 不成立: 鄭樵는 何彼穠矣篇의 詩序가 事理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何彼穠矣(序)에 “비록 王姬이지만 또한 諸侯에게 下嫁한다”고 하였는데, 王姬가 諸侯에게 시집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시집가는가?<sup>66)</sup>

以上과 같이 鄭樵는 詩序說을 錯誤를 들추어 내어 비판하고 그 신빙성을 완전히 부정하여 傳統 詩經論에 正面으로 反旗를 들었다.

## 2. 反毛鄭

毛詩序와 毛詩는 鄭玄이 詩를 箋하고 序를 注함으로 인해 하나로 되

63) 朱子語類, 卷 80, 頁 13. “鄭漁仲謂詩小序, 只是後人將史傳去揀, 并看諡, 却附會作小序美刺.”

64) 非詩辨妄, 頁 8. “宛丘·東門之枌刺幽公, 衡門謂刺僖公. 幽僖之迹, 無所據見. 作敘者但本諡法而言之.”

65) 위의 책, 頁 8. “彼以侯人爲刺共公, 共公之前, 則昭公也, 故以蜉蝣爲刺昭公. 昭公之毫無其迹, 但不幸代次迫於共公, 故爲衛宏所實.”

66) 위의 책, 頁 6. “何彼穠矣言「難則王姬, 亦下嫁於諸侯。」不知王姬不嫁諸侯, 嫁何人?”

었다. 그러므로 詩序를 반대하는 것이 바로 毛·鄭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毛·鄭의 詩說이 정통 詩經論으로 인정되어 詩經學界를 壟斷하는 局面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선 齊·魯·韓 三家詩說이 우수하고 毛詩說이 膚筭함을 反證하여야 한다. 이에 鄭樵는 三家詩가 西漢 때에 이미 學官에 세워져 영향력을 펼쳤으며 毛詩가 當時에 擡頭하지 못한<sup>67)</sup> 緣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漢人이 三家를 숭상하고 毛氏를 취하지 않은 것은 왕왕 그 뜻을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妄倣되고 怪誕한 때문이었다. 때문에 當時 사람들에게 鄙視당하였다.<sup>68)</sup>

鄭樵는 毛公이 그의 詩說이 當時 사람에 의해 채용되지 않자, 孔子가 일찌기 “나를 제발시키는 자는 商(子夏)이로다. 비로소 더불어 詩를 이야기할 수 있다(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고 하여 子夏를 칭찬한 사실에 의거, 그의 詩가 子夏로부터 傳해진 것이라고 꾸며대어 子夏의 권위를 빌어 學者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했다고 주장,<sup>69)</sup> 毛·鄭을 村里의 비루한 儒生이라고 비난하고,<sup>70)</sup> 이들의 說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鄭樵는 關雎篇의 “關關雎鳩，在河之洲”句는 이것을 읊어 淑女를 생각하는 마음을 興起시킨 것이라 여기고 毛傳에서 后妃·君子에 비유시켜 政治的 倫理와 결부시켰음을 지적하였다.

67) 西漢末 平帝 때에 毛詩가 學官에 세워졌으나 곧 廢해졌다.

68) 非詩辨妄, 頁 3. “漢人尙三家而不取毛氏者, 往往非不取其義也, 但以妄誕之故, 故爲時人所鄙.”

69) 위의 책, 頁 1 참조.

70) 위의 책, 頁 12에서 周孚가 鄭樵의 “毛鄭輩亦識理”라는 말은 반박하면서 “向曰村里陋儒, 今日識理.”라고 한 것을 보아 鄭樵가 毛·鄭을 村里陋儒라고 비난하였음을 알 수 있다.

“關關雎鳩，在河之洲”는 淑女를 생각할 때마다 혹은 징경이가 강의 모래톱에 있는 것을 興見하거나 혹은 징경이가 강의 모래톱에 있는 것을 興感한 것이다. 징경이가 강 가운데의 모래톱에 있어 얻을 수가 없는 것으로써 淑女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을 비유한 것이다. 어찌 반드시 징경이로써 淑女를 말한 것이겠는가? 毛(傳)는 “后妃가 悅樂하고 君子の 德이 和諧롭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치인가? 71)

鄭箋 역시 葛覃篇에서 詩序의 道德的 倫理의 입장에 의거하여 詩意를 확대 해석하였기 때문에 鄭樵의 비판을 받았다.

“葛之覃兮，施于中谷”， 이것은 婦人이 婦功을 이루는 데 급해하는 詩이다. 鄭(箋)은 “女子가 母家에 있을 때 形體가 날로 長大해 짐을 비유하였다” 하였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 72)

이 밖에 鄭樵는 毛·鄭이 天文에 어두웠기 때문에 大東篇에서 啓明과 長庚 모두가 太白星이라고 여겼고, 73) 毛·鄭이 詩序에 구애되어 王의 諡號를 諡號로 보지않고 字眼 그대로 해석하여 詩篇의 作成年代 및 詩意를 그르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74)

### 3. 詩序說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원래 있을 필요가 없어 존재하지 않았던 詩序가 後世에 出現하여 通行되었는데, 鄭樵는 詩序가 사실 後漢 衛宏의 作이라 하여 詩篇의 大意 및 詩作의 動機에 대한 傳統 詩序

71) 위의 책, 頁 12. “「關關雎鳩，在河之洲」” 每思淑女之時，或興見關雎在河之洲 或興感雎鳩在河之洲；雎在河中洲上，不可得也，以喻淑女不可致之義，何必以雎鳩而說淑女也。毛謂「以喻后妃悅樂君子之德，無不和諧。」此何理？”

72) 위의 책, 頁 12~13. “「葛之覃兮，施于中谷」，此婦人急於成婦功之詩也。鄭以謂「喻女在母家，形體浸浸日長大也」。此何等語。”

73) 위의 책, 頁 4 참조.

74) 六經輿論, 卷 3, 頁 21~22 참조.

說의 신빙성을懷疑하고, 그 誤謬를 비판하였다. 그는 詩序說을 全面 부정하는 입장에서 서서 詩序 및 毛·鄭說을 따르지 않고 獨自의인 詩經論으로써 詩旨를 해석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鄭樵 스스로가 詩序의 存在를 부정, 毛詩序를 廢棄하면서도 自身の 詩傳에서 따로 詩三百篇의 序를 지어,<sup>75)</sup> 自家撞着的인 입장을 취한 점이다. 이 때문에 그는 後人の 批判을 받았다.<sup>76)</sup>

그의 詩序說은 詩傳과 함께 亡失되어 傳하지 않는다. 다만 通志略에 그의 詩序說이라고 믿어지는 資料가 殘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風雅頌序：風土之音曰風，朝廷之音曰雅，宗廟之音曰頌。
- ② 二南序：周爲河洛，召爲岐雍。河洛之南瀕漢。江漢之間，二南之地，詩之所起在于此，屈·宋以來，騷人墨客多生江漢，故仲尼以二南之地爲作詩之始。
- ③ 王風 黍離序：王爲王城，東周之地。黍離者，東周之風。
- ④ 豳風 七月序：豳爲豳豐，西周之地，七月者，西周之風。<sup>77)</sup>

毛詩序가 詩를 政治 興衰의 산물로 教化·諷諫·美刺 등의 目的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 데 비해, 鄭樵의 詩序說은 純전히 詩를 音樂의 側面에서 해석하였음을 위의 資料로부터 알 수 있다. 鄭樵는 그가 詩序를 만든 目的이 孔子가 正樂한 뜻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75) 註9) 참조.

76) 陳振孫은 直齋書錄解題, 卷2, 頁15에서 "謂小序非子夏所作, 可也; 盡削去之, 而以己意爲之序, 可乎? 樵之學離自成一派, 而其師心自是, 殆孔子所謂不知而作者也."라고 하여 鄭樵가 詩序를 불신하여 폐기한 것에는 동조하였으나, 따로 詩序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無知의 所致라고 비난하였다.

77) 通志略, 昆蟲草木略第一, pp.3~4.

臣이 詩에 序를 붙이는 것은 오로지 聲歌로써 하여 孔子가 樂을 바로 잡은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sup>78)</sup>

筆者는 鄭樵의 詩傳에 그가 詩主聲說에 의거하여 詩를 音樂的인 측면에서 해석한 것 이외에 每篇마다 詩의 篇旨를 설명한 즉 毛詩序의 美刺說 및 毛·鄭說을 따르지 않고 다만 詩本文에 의거하여 詩旨를 판단한 序가 또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類의 詩序로 推定되는 것으로 鄭風 將仲子篇의 序가 朱子에 의해 인용되어 있다.

齋田 鄭氏가 “이 將仲子篇은 淫奔者의 辭이다”라고 말하였다.<sup>79)</sup>

위의 말은 將仲子篇에 대해 毛詩序가 “莊公을 풍자한 것이다(刺莊公也)”라고 하여 刺詩로 여긴 것을 鄭樵가 淫奔詩로 序한 것임을 뜻한다. 그리고 清 馬瑞辰이 “鄭夾深는 詩序가 「刺莊」·「刺忽」·「刺時」·「閔亂」이라고 한 詩에 대해서 모두 淫奔詩로 바꾸었다<sup>80)</sup>고 한 것으로 보아, 鄭樵가 將仲子篇 이외에 鄭風 靜女(詩序: 刺時也)·衛風 氓·有狐(詩序: 刺時也)·鄭風 有女同車·山有扶蘇·蘄兮·狡童(詩序: 刺忽也) 및 出其東門(詩序: 閔亂也)等篇을 淫奔詩 즉 男女間의 戀愛詩로 序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結 語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鄭樵의 詩經論은 當時까지 定說로 인정되어 오던 詩序說 및 毛·鄭의 說을 懷疑·否定하는 입장에 서서 詩를

78) 위의 책, 昆蟲草木略第一, p.4. “臣之序詩, 專爲聲歌, 欲以明仲尼之正義.”

79) 朱熹, 詩集傳(臺北: 中華書局, 1973), p.48.

80) 馬瑞辰, 毛詩傳箋通釋(臺北: 復興書局 影印, 皇清經解續編本), 卷八, 頁1. “鄭夾深於詩序「刺莊」·「刺忽」·「刺時」·「閔亂」之詩, 盡改爲淫奔之詩.”

音樂과 연관시켜 樂章의 가사로 理解한 데에 특징이 있다.

鄭樵는 古代에 詩가 音樂과 密接한 관계를 가졌다는 데에 착안하여 詩主聲說을 주장, 詩經의 風·雅·頌은 樂章의 명칭에 불과하여 그 명칭 자체에 별다른 意味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字眼에서 義理를 探求하여 이를 政治的 功能面에서 說明한 詩序說을 바탕으로한 傳統 詩經論을 부정하였다. 특히 그가 風은 風土의 音이라고 피력한 說은 그 後 朱熹에 의해 계승, 國風時는 里巷歌謠로 男女間의 사랑 - 특히 邪惡 - 을 노래한 詩가 많다는<sup>81)</sup> 淫詩說로 발전되어 國風詩中 29 篇을 淫奔詩로 判定하기에 이르렀다.

鄭樵는 賦·比·興中 가장 難解한 興을 重視, “무릇 詩의 根本은 聲에 있고, 聲의 根本은 興에 있다”<sup>82)</sup>고 하여, 興句가 應句에 聯想作用 또는 象徵作用을 일으켜 相互間에 義理上의 연관 관계가 있다고 興을 해석한 毛·鄭의 傳統 興說을 부정하고, 興句에서 읊은 것이 主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만 詩興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이라는 獨創的인 見解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見解는 現在 定說로 인정되고 있다.

歐陽修·蘇轍 등의 詩序에 대한 懷疑論이 제기된 이후, 鄭樵는 이들의 說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詩序說을 바탕으로 한 傳統 詩經論을 부정하고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여 後世에 큰 영향을 주었다. 즉 風詩와 雅詩가 본디 채집된 것으로 그 創作動機와 主題가 不分明하고 또한 그 用途가 一定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詩序가 원래 없었다고 주장, 所謂 子夏 詩序의 存在를 부정하고 그 誤謬를 지적·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詩序說에 의거한 毛·鄭說을 공격하고, 獨自的인 觀點으로써 새로운 詩의 해석을 시도, 詩를 詩 本文 자체로써 해석(以詩解詩)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 後世에 詩經을 純文學的인 觀點에서

81) 朱熹, '詩集傳序', 朱文公文集(臺北:商務印書館 影印), 卷 76, 頁 3 참조.

82) 通志略, 昆蟲草木略第一, p. 3. “夫詩之本在聲, 而聲之本在興.”

理解하도록 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鄭樵詩經論의 詩經學史에 있어서의 의의는 傳統 詩經論의 否定과 新詩經論의 出現을 촉진시킨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